

뉴저지초대교회, 미군참전용사회에 한국서 온 마스크 기증



뉴저지초대교회는 26일 포트리에 있는 미군참전용사회(Veterans of Foreign Wars)를 방문하고 성금 1천 달러와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다. 박형은 목사를 대신하여 오세준(Rev. John Oh) 목사가 포트리 재향군인회 Anthony Lion 회장에게 성금과 마스크를 전달했다.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는 26일 오후 3시 포트리에 있는 미군참전용사회(Veterans of Foreign Wars)를 방문하여 성금 1천 달러와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다.

이 마스크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6월 한 달 동안 모은 보은의 마스크 1만500장을 뉴저지초대교회로 보내왔는데, 뉴저지초대교회는 이 마스크를 뉴저지에 있는 여러 지역 참전용사회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다.

성금과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한 뉴저지초대교회의 관계자는 “어려울 때 우리 고국을 도왔던 미군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도 작은 정성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성금과 마스크를 전달하여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